

수능 국어 고전소설 만점을 위해서는 모르는 작품을 만나도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흔히들 그 힘이 '해석'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수능 국어 고전소설 시험은 객관식인 만큼 '해석'은 출제자가 하는 것이고, 우리는 지문에 쓰여 있는 그대로를 왜곡 없이 읽고 선지를 통해 제시된 해석이 적절한지 '판단'만 하면 됩니다.

『하루 30분, 고전소설 트레이닝』은 4주(28일) 동안 고전소설 지문을 꼼꼼하게 독해하고 선지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고전소설 지문 독해 시의 이상적인 사고 과정을 체화**하고 **선지를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고2 학력평가 및 고3 학력평가, 모의평가, 수능에서 엄선한 **다양한 난이도의 지문과 문제**를 통해 수능 국어 고전소설 만점을 위한 **단계별 학습**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문제 책과 해설 책을 분권하였으며, **4주 완성 계획표**를 함께 제공합니다. 해설 책의 **‘하루 30분, 수능 국어 만점을 향해 가는 28일’**을 채워 가며 자신의 학습 진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주 완성 계획표

일	지문 제목	페이지
01	홍길동전 '제비안' - 지문 지문 '사슴잡는'	P108 P104
02	홍길동전 '제비안' - 지문 지문 '제비안'	P109 P105
03	홍길동전 '제비안' - 지문 지문 '제비안'	P110 P106
04	홍길동전 '제비안' - 지문 지문 '제비안'	P111 P107
05	홍길동전 '제비안' - 지문 지문 '제비안'	P112 P108
06	홍길동전 '제비안' - 지문 지문 '제비안'	P113 P109
07	홍길동전 '제비안' - 지문 지문 '제비안'	P114 P110
08	홍길동전 '제비안' - 지문 지문 '제비안'	P115 P111
09	홍길동전 '제비안' - 지문 지문 '제비안'	P116 P112
10	홍길동전 '제비안' - 지문 지문 '제비안'	P117 P113
11	홍길동전 '제비안' - 지문 지문 '제비안'	P118 P114
12	홍길동전 '제비안' - 지문 지문 '제비안'	P119 P115
13	홍길동전 '제비안' - 지문 지문 '제비안'	P120 P116
14	홍길동전 '제비안' - 지문 지문 '제비안'	P121 P117
15	홍길동전 '제비안' - 지문 지문 '제비안'	P122 P118
16	홍길동전 '제비안' - 지문 지문 '제비안'	P123 P119
17	홍길동전 '제비안' - 지문 지문 '제비안'	P124 P120
18	홍길동전 '제비안' - 지문 지문 '제비안'	P125 P121
19	홍길동전 '제비안' - 지문 지문 '제비안'	P126 P122
20	홍길동전 '제비안' - 지문 지문 '제비안'	P127 P123
21	홍길동전 '제비안' - 지문 지문 '제비안'	P128 P124
22	홍길동전 '제비안' - 지문 지문 '제비안'	P129 P125
23	홍길동전 '제비안' - 지문 지문 '제비안'	P130 P126
24	홍길동전 '제비안' - 지문 지문 '제비안'	P131 P127
25	홍길동전 '제비안' - 지문 지문 '제비안'	P132 P128
26	홍길동전 '제비안' - 지문 지문 '제비안'	P133 P129
27	홍길동전 '제비안' - 지문 지문 '제비안'	P134 P130
28	홍길동전 '제비안' - 지문 지문 '제비안'	P135 P131

하루 30분, 수능 국어 만점을 향해 가는 28일

01월 01일

01월 02일

01월 03일

01월 04일

01월 05일

01월 06일

01월 07일

01월 08일

01월 09일

01월 10일

01월 11일

01월 12일

01월 13일

01월 14일

01월 15일

01월 16일

01월 17일

01월 18일

01월 19일

01월 20일

01월 21일

01월 22일

01월 23일

01월 24일

01월 25일

01월 26일

01월 27일

01월 28일

도서출판 홀수 홈페이지(www.holsoo.com)의 '질문과 답변' 게시판을 통해 궁금한 점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으로 공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루 30분, 고전소설 트레이닝』으로
4주 후, 달라진 고전소설 지문 독해력과 선지 판단력을 확인해 보세요!

4주 완성 계획표

DAY	수록 작가 및 작품	페이지	
		문제 책	해설 책
1 주차	01 조위환, 「최척전」 · 작자 미상, 「소대성전」	P.008	P.004
	02 작자 미상, 「어룡전」 · 작자 미상, 「토끼전」	P.012	P.010
	03 작자 미상, 「장풍운전」 · 서유영, 「육미당기」	P.016	P.016
	04 작자 미상, 「양풍전」 · 허균, 「홍길동전」	P.020	P.022
	05 신광한, 「하생기우전」 · 작자 미상, 「반씨전」	P.024	P.028
	06 작자 미상, 「임진록」 · 작자 미상, 「서대주전」	P.028	P.034
	07 작자 미상, 「김원전」 · 작자 미상, 「전우치전」	P.032	P.039
2 주차	01 작자 미상, 「옥주호연」 · 작자 미상, 「유문성전」	P.038	P.046
	02 작자 미상, 「유충렬전」 · 작자 미상, 「숙향전」	P.046	P.053
	03 임제, 「원생몽유록」 · 작자 미상, 「운영전」	P.054	P.059
	04 남영로, 「옥루몽」 · 작자 미상, 「박씨전」	P.062	P.065
	05 작자 미상, 「이춘풍전」 · 작자 미상, 「흥계월전」	P.070	P.071
	06 작자 미상, 「조웅전」 · 김만중, 「구운몽」	P.078	P.077
	07 작자 미상, 「매화전」 · 작자 미상, 「심청전」	P.084	P.083
3 주차	01 작자 미상, 「창선감의록」 · 홍세태, 「김영철전」	P.094	P.092
	02 작자 미상, 「장끼전」 · 김시습, 「만복사저포기」	P.102	P.101
	03 작자 미상, 「흥부전」 · 작자 미상, 「장국진전」	P.110	P.109
	04 작자 미상, 「용문전」 · 작자 미상, 「옥단춘전」	P.118	P.117
	05 작자 미상, 「까치전」 · 박지원, 「호질」	P.126	P.125
	06 작자 미상, 「숙영낭자전」 · 작자 미상, 「화산중봉기」	P.134	P.133
	07 작자 미상, 「열녀춘향수절가」 · 작자 미상, 「윤지경전」	P.142	P.141
4 주차	01 김만중, 「사씨남정기」 · 작자 미상, 「정수정전」	P.152	P.152
	02 작자 미상, 「채봉감별곡」 · 작자 미상, 「응고집전」	P.160	P.160
	03 작자 미상, 「유씨삼대록」 · 작자 미상, 「장백전」	P.168	P.168
	04 작자 미상, 「김진옥전」 · 작자 미상, 「김인향전」	P.178	P.177
	05 작자 미상, 「정을선전」 · 작자 미상, 「설낭자전」	P.186	P.185
	06 작자 미상, 「적성의전」 · 우화소설의 세계 / 작자 미상, 「서대주전」 / 작자 미상, 「별주부전」	P.194	P.193
	07 우리나라 전기소설 / 작자 미상, 「김현감호」 · 전쟁 소설의 성격 / 작자 미상, 「박씨전」	P.202	P.202

1주차

지문 독해의 원리

1주차에서는 본격적인 선지 판단 훈련에 앞서 고전소설 지문을 객관적으로 읽는 훈련을 할 거야.

1주차 등장인물 파악하며 읽기

30 하루 30분 고전소설 트레이닝

고전소설 독해의 STEP 1

등장인물 파악하기

고전소설 독해의 STEP 1

등장인물 파악하기

고전소설 독해의 STEP 1

등장인물 파악하기

고전소설 독해의 STEP 2

등장인물 파악하기

고전소설 독해의 STEP 2

등장인물 파악하기

고전소설 독해의 STEP 2

등장인물 파악하기

문제

1. 1번 문제를 풀어 보지요.
2. 1번 문제를 풀어 보지요.
3. 1번 문제를 풀어 보지요.
4. 1번 문제를 풀어 보지요.

30 하루 30분 고전소설 트레이닝

고전소설 독해의 STEP 1

등장인물 파악하기

고전소설 독해의 STEP 1

등장인물 파악하기

고전소설 독해의 STEP 1

등장인물 파악하기

고전소설 독해의 STEP 2

등장인물 파악하기

고전소설 독해의 STEP 2

등장인물 파악하기

고전소설 독해의 STEP 2

등장인물 파악하기

해설

1. 1번 문제를 풀어 보지요.
2. 1번 문제를 풀어 보지요.
3. 1번 문제를 풀어 보지요.
4. 1번 문제를 풀어 보지요.

- 고전소설에서는 장면을 끊어 읽으며 등장인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 []를 치며 읽어 보자. 또한 '사건의 흐름'을 채우며 지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장면표기'를 통해 장면을 끊는 기준을 배워보자. 이후 해설 책과 비교를 통해 자신의 지문 독해력을 점검해 볼 수 있어.
- 지문에서 등장인물을 파악했다면, 이를 토대로 '구조도' 박스의 빈칸을 채우면서 주요 인물의 관계를 정리해 보자.
- 1번 문제는 지문의 핵심에 대한 이해도를 점검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지문에서 근거를 찾아 선지의 적절성 여부를 하나하나 판단 하며 지문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확인하자.
- 2번 문제는 작품의 서술상 특징에 대해 묻는 문항이야. 해설 책에 제시된 문학 개념어의 정의와 지문 속의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해 보면서 필수적인 문학 개념어를 실천적으로 학습할 수 있어.

2 / 3 / 4 주차

선지 판단의 원리

2~4주차에서는 '선지 판단의 공식' 표를 활용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정답 선지를 가려내는 훈련을 할 거야.

2주차 등장인물 파악하며 읽기 + 선지 판단의 공식 익히기

선지 판단의 공식

① '김 진사'는 '_____ 앞에 나아가' '특이란 종놈의 _____ 을 끊고 쇠로 만든 칼을 씌워 지옥에 가두어 주을 소서'라고 빌었음

선지 '김 진사'는 부처님에게 '특'의 죽음을 기원했다. ○ ×

② '특'은 '김 진사'에게 '지난날의 죄를 용서'받고도 '계속 _____ 을 저지르며, '김 진사는 '공부를 핑계로 '_____ 에 올라가 '머칠을 묵으며 특이란 놈이 한 짓을 자세히 듣게 되'고는 '_____ 을 이기지 못'함

선지 '김 진사'는 청량사에서 '특'의 행적을 전해 듣고 분노했다. ○ ×

2주차에서는 1주차와 마찬가지로 ① - ② - ③ - ④의 순서에 따라 빈칸을 채우고 문제를 풀 후, '선지 판단의 공식'을 통해 1번 문제의 선지를 다시 꼼꼼하게 분석해 보자. 각 선지의 판단 근거가 되는 내용을 지문에서 직접 확인하는 훈련을 통해 선지를 판단하는 바른 습관을 기를 수 있을 거야.

3주차 등장인물 파악하며 읽기 + <보기> 문제 선지 판단의 공식 익히기

<보기> 문제 선지 판단의 공식

① <보기> 가족 구성원이 겪는 고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인물 들은 _____ 을 돕는 인물의 도움을 받기도 함

선지 오 남중이 가문 사이를 매개하는 것을 보니, 사리 판별을 하여 가족 구성원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모습을 알 수 있군. ○ ×

작품 '_____ 은 본시 권세를 두려워하여 예에 하고 대담만 할 줄 아는 _____ 이었다. 그는 공손하게 손을 모은 채 명을 받은 뒤 오 부인을 찾아가 조문화가 한 말을 그대로 전했다.'

3주차에서는 <보기>가 포함된 문제의 선지 판단 공식을 배워볼 거야. 선지 판단의 근거가 되는 <보기>의 내용과 지문의 근거를 생각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선지의 정오를 다시 한번 판단하면 돼.

4주차 등장인물 파악하며 읽기 + 장면 직접 끊기 + 고난도 문제 선지 판단의 공식 익히기

장면 끊기 01 사 씨는 공술에서 _____ 을 만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_____ 의 덕을 실성한 여성들로 알려진 이들을 만나 인사함

장면 끊기 02 공에서 **꺼어남** 사 씨는 _____

장면 끊기 03 **해기 진 뒤** 여승과 여동이 사 씨를 찾아오고 두 사람의 도움으로 함께 _____ 에 갈

함정 피하기

공간의 변화는 소설 지문의 장면을 끊는 기준 중 하나이다. 그만큼 공간적 배경과 그 공간의 변화 등은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선지처럼 인물들이 위치한 공간이 어디인지 세세히 파악할 것을 유도하기도 한다. 지문에서 '모당' 이라고 불리는 곳이 바로 '황룡모'임을 알았다면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 그리고 사 씨 일행이 방향하던 처지임은 맞지만 지문에서는 황룡묘를 떠나지 않고 머물고 있던 처지 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가 관건이었다.

4주차에서는 지문을 읽으면서 직접 장면을 나누어 보자. 지문을 다 읽은 뒤에는 형광펜이 그어진 부분을 참고해서 자신의 장면끊기를 스스로 점검하고 장면별 내용을 요약 하면 돼.

4주차의 1번 문제는 고난도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기르기 위해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들로 구성했어. 특히 매력적인 오답 선지였거나 헷갈리는 요소가 포함된 선지의 경우, 해설 책의 '함정 피하기'에서 문제 풀이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학습하면 돼.

1주차 학습 안내

소설 읽기와 소설 지문 읽기는 달라. 소설 지문은 작가가 창작한 그대로가 아닌, 출제자가 선택적으로 편집한 부분만을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출제자의 의도대로 읽어야 해. 출제자의 의도대로 소설 지문을 읽기 위해서는 첫째,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고 그 인물들이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며, 다른 인물과 어떤 관계를 맺어 가는지를 파악하면서 읽어야 하고 둘째, 장면을 끊어 가며 읽어야 해.

소설은 주로 인물의 행적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전개하는 만큼, 새로운 인물이 나오면 표시를 하며 읽는 게 좋아. 특히 고전소설은 현대소설에 비해 등장인물의 수가 많고, 동일한 인물을 서로 다른 호칭이나 지칭어로 가리키는 경우도 많아. 또한 문제에서 중심 인물뿐만 아니라 비중이 낮은 주변 인물에 대해 묻기도 하므로 꼼꼼하게 파악해야 해. 그리고 인물의 심리나 태도, 갈등 관계 등이 두드러진 부분도 놓쳐서는 안 되지. 이런 부분은 지문 중간중간 '사과의 흐름'을 통해 짚어 줄 테니, 빈칸을 채우면서 인물과 사건에 대한 이해를 넓혀 보자. 이후 '구조도'를 활용하여 이와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지문의 내용이 조금 더 명확하게 다가올 거야.

소설에서 장면은 주로 시간이나 공간의 변화, 주요 서술 대상의 변화 등에 따라 나뉘는데, 이때 장면을 적절히 끊어 가며 읽으면 지문의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 처음부터 스스로 장면을 끊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1주차에서는 장면이 나뉘는 부분마다 '장면끊기'를 제시해 지문의 전개를 파악할 수 있게 했으니, '장면끊기'의 빈칸을 채워 가면서 장면을 나누는 원칙을 배워보자.

지문에 대한 꼼꼼한 독해를 마쳤다면 1번 문제를 풀며 지문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점검하고, 2번 문제를 통해서 필수적인 문학 개념어를 학습하면 돼. 문제 풀이까지 모두 마쳤다면 해설 책을 참고해 잘한 부분, 아쉬운 부분 등을 확인하여 정리해 두자.

고전소설 독해의 STEP 1

1 등장인물에 표시를 하고 빈칸에 적절한 말을 채우세요.

타남주가 작은 다람쥐에게 등불을 환하게 밝히게 하니 좌우의 기물, 주옥, 패물, 초구, 단필 등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털렸음을 알았다. 상하가 놀라 당황하며 얼굴색이 달라지고 있는데, 한 작은 다람쥐가 허겁지겁 달려와 고하였다.

“바위 위에 쌓아 놓은 알밤도 다 잃어버리고 하나도 남김이 없습니다.”

타남주가 이 말을 듣고는 뼈에 사무치듯 크게 울부짖었다.

“주옥과 보배야 설령 도적을 맞았을지언정 어찌 말할 것이라! 하지만 흉년으로 인해 굶주리는 시절임에도 여러 해에 걸쳐 쌓아두었던 곡식을 하룻밤 사이에 강도에게 죄다 잃고 말았던 말인가! 이 같은 흉황한 때에 장차 수많은 족속이 생활을 지탱하고 보존할 방도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눈물이 흘러내려 옷깃을 적시니, 좌중의 여러 무리들도 슬퍼하고 놀래어 입을 다문 채 말이 없는 것이 마치 병어리들의 무리와 같았다. _____와 그의 족속들은 강도에게 주옥과 보배뿐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모아 온 _____을 도둑맞아 버렸다. 타남주 등은 이에 놀라 당황했고, 흉황한 때에 족속이 생활을 지탱할 방법을 잃은 슬픔과 놀람에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에, 타남주는 다시 한참 만에 말하였다.

“근래 들으니, 농서 소토산(小峯山)의 절벽 밑에 새로 모여든 강도 중 서대주란 이름난 놈이 도적놈들을 불러 모아서, 위로는 주군 현읍(州郡縣邑)에서부터 아래로는 마을의 부호나 서인에 이르기까지 절도하지 않음이 없다고 한다. 이번에 우리가 물건을 잃은 것도 실로 다른 놈이 아니라 반드시 그 놈의 소행일 것이다. 즉시 원님께 고소장을 먼저 올려, 하나하나 옳고 그름을 따지어 바로 잡으시도록 해야겠다.” 타남주는 강도 사건의 범인으로 _____를 지목하고 원님께 _____을 올리겠다고 해.

좌중에 있던 한 늙은 다람쥐가 황급히 말하였다.

“주옹(主翁)께서 하신 말씀이야 진실로 옳습니다. 그렇지만 옛말에 ‘그 도적질한 바를 밝히어야 도적이 곧 굴복한다.’라고 했습니다. 대저 도적을 잡는 법은 이전의 행각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로는 잡지 못할 것이니, 그 도적을 보지도 않고 먼저 고소를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듯합니다. 우리들 중 영리하고 판단력 있는 자가 서대주가 있는 소굴로 가서 그 허실을 살펴 들은 연후에 고소를 하여도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 타남주의 말에 한 _____는 서대주를 찾아서 그를 살펴본 이후에 고소를 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말해.

장면표기 01 타남주가 다스리는 곳에 도적이 들어 온갖 보물과 곡식을 잃어버린 사건이 제시되었어. 타남주는 _____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바로 고소장을 올리려 하지만, 한 늙은 다람쥐의 의견에 따라 우선 영리한 자를 보내 _____을 살피기로 해. 이후 중략 줄거리가 나오고 서대주가 붙잡혀 온 이후의 사건이 전개되니 여기에서 장면을 끊자.

[중략 줄거리] 타남주는 서대주 소굴에 작은 다람쥐를 보내 절취 사건의 전모를 확인한 후 고소장을 올린다. 이에 원님은 사령에게 서대주를 붙잡아 올 것을 명령한다. 붙잡혀 온 서대주는 타남주와 함께 원님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서대주가 잡힌 후 절취 사건에 대한 _____이 시작되었어.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재판 과정이 자세하게 나타나겠지?

“저놈이 올린 고소야말로 어찌 잊분을 속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또한 근년 이래 흉년이 극심하여 살아나갈 길이 없는 터에 어떻게 알밤을 갈무리해둘 수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더욱 맹랑한 말이옵니다. 서대주는 타남주의 고소가 거짓이라고 주장해. 근거 ①은 _____이 극심한 때에 곡식을 쌓아둘 수 없었을 것이므로, 자신이 타남주의 곡식을 훔쳤다는 것은 헛된 거짓말이라는 거야.

저는 본시 대대로 부유하여 이와 같은 흉년에 한 홉조차 다른 것들한테 꾸지 않아도 되는데, 빌어먹는 놈의 밤을 훔쳤다는 것이 어찌 옳겠습니까? 근거 ②는 서대주는 대대로 _____하여 곡식을 꾸거나 훔칠 필요가 없었다는 거야. 이놈의 평생시 소행을 제가 하나하나 다 아뢰겠나이다. 매년 봄여름이 되면 농사 잘 짓는 자들을 널리 구하여 밤낮으로 가을 건이를 한 후에는, 그들 중에서 절름발이, 도둑놈, 귀머거리, 맹인, 쓸모없는 늙은 할미는 쫓아내어 흠여지게 하였는데, 또 봄여름이면 이와 같이 그대로 하였습니다. 매년 겨울이 되면 이들을 마을에 떠돌아다니는 거지가 되게 하여, 보는 자가 차마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짓을 행하였기 때문에 분개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마침 사냥하러 나갔을 때, 소토산 원편의 용강산(龍岡山) 기슭에서 만나 고도 인사조차 하지 않기에 그 행실머리 없음을 아주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그 후로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알지 못한 채 항상 분노의 마음을 품고는, 사리에 맞지 아니한 터무니없는 말로 저를 얹어매는, 도리에 어긋난 간악한 송사를 피했으니, 세상 천지에 이와 같은 맹랑하고 무뢰한 놈이 있었습니까? 근거 ③에서는 _____의 잘못된 행실을 나열한 후, 과거에 서대주가 이를 꾸짖은 적이 있기 때문에 타남주가 이에 원한을 품고 간악한 _____를 피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제가 비록 매우 졸렬하기는 하지만 역시 대대로 공훈이 있는 가문의 후손으로서, 이러한 무도하고 못난 놈한테 구차하게 고소를 당하여 선조의 공훈에 더럽힘을 끼치고 관정을 소란스럽게 하오니, 죽으려고 하여도 죽을 만한 곳이 없어서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하옵니다. 밝게 살피시는 원님께 엎드려 바라건대, 사정을 살피시어 원한을 풀어 주옵소서.”

서대주가 옷깃을 고쳐 여미며 단정히 꿇어앉았는데, 뽀족한 입이 오물거리고 두 귀가 발쪽거리며 두 눈이 깜짝거리면서 두 손을 모아 슬피 빌고 눈물이 흘러내려 옷깃을 적시니, 보는 자가 더할 나위 없이 애처롭고 불쌍하다고 할 만한 것이었다. 서대주는 원님 앞에 꿇어앉아 _____ 빌며 자신의 억울함을 아리고 자신의 _____을 풀어 달라고 말하고 있어. 타남주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서대주의 말과 애처롭게 보이는 행동에서 서대주의 교활한 성격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군.

원님이 서대주의 진술하는 말을 들으니 말마다 사리에 꼭 들어맞고, 형세가 본디부터 그러하여 죄를 주기도 어려워, 결박한 것을 풀고 씩은 큰 칼을 벗겨 주고는, 술을 내려주어 놀랜 바를 진정케 하고 특별히 놓아주었다. 원님도 서대주의 진술을 듣고 죄를 주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_____을 내려주고는 그를 놓아주었다고 해. 타남주는 도리에 어긋난 간악한 소송을 한 죄로 몽둥이 세 대를 맞고 멀리 떨어진 외딴 섬으로 귀양을 가니, 서대주가 거둬거둬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갔다. 재판 결과 타남주가 간악한 소송을 벌인 죄를 받고 _____을 가게 되었어. 원님이 서대주의 말만 듣고 잘못된 판결을 내린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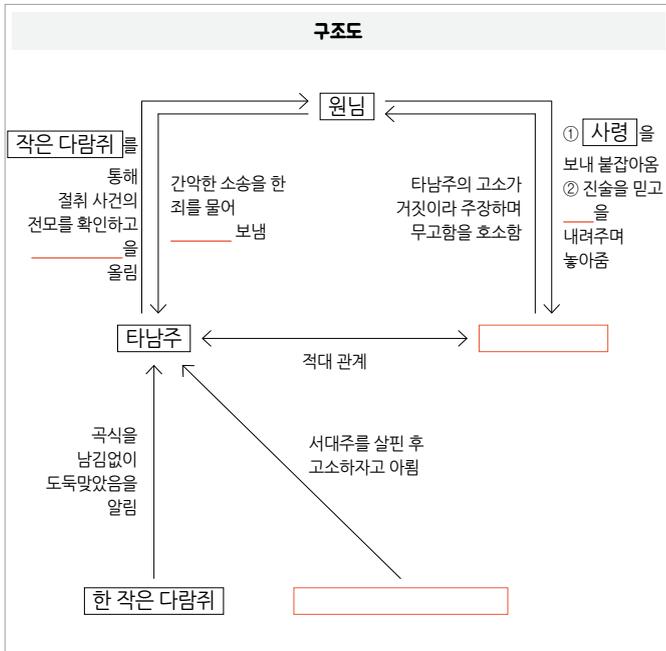


장면표기 02 서대주를 붙잡아 _____을 하게 되었지만, 억울해하며 슬피 비는 서대주의 말을 들은 원님은 오히려 _____에게 벌을 주고 귀양을 보내지.
- 작자 미상, 「서대주전(鼠大州傳)」 -

2 1~2번 문제를 풀어 보세요.

고전소설 독해의 STEP 2

1 인물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구조도의 빈칸에 적절한 말을 채우세요.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원님은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내리고 있다.
- ② 타남주는 서대주가 절취 사건의 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 ③ 서대주는 원님이 사건의 진위를 밝혀낼 것을 기대하고 있다.
- ④ 서대주는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 마을 부호의 재물을 탈취했다.
- ⑤ 타남주는 모든 것을 도둑맞은 절박한 상황에서도 의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 인물의 말하기 방식 OX 확인 문제

- ① [A]는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상대방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 ×
- ② [A]는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상대방을 모함하고 있다. ○ ×

2주차 학습 안내



2주차에서도 1주차와 동일한 훈련이 이어질 거야. 등장인물들을 파악하고 ‘사과의 흐름’과 ‘장면 끊기’, ‘구조도’를 통해 지문을 꼼꼼하게 이해하고 정리한 뒤, 문제를 풀면서 자신의 이해를 점검하는 거지.

다만 2주차부터는 1번 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 거야. 즉 단순히 정답을 찾는 데 그치지 않고, 지문의 어떠한 부분을 근거로 삼아 선지의 정·오답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는 훈련을 하는 거지. 이를 돕기 위해 2주차에 추가된 장치가 바로 ‘선지 판단의 공식’이야. ‘선지 판단의 공식’의 빈칸을 채우고 이를 고려해 각 선지의 정오를 다시 한번 판단해 보자. 이를 통해 처음 문제를 풀 때의 자신의 사고 과정과 ‘선지 판단의 공식’을 활용해 다시 문제를 풀 때의 사고 과정을 비교해 보면서, 올바른 정오 판단을 위해 필요한 접근 방식과 태도 등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을 거야.

고전소설 독해의 STEP 1

1 등장인물에 표시를 하고 빈칸에 적절한 말을 채우세요.

“사부는 어느 곳으로부터 오셨나이까?”
 노승이 웃으며 대답하기를,
 “평생 알고 지낸 사람을 몰라보시니 일찍이, ‘귀인은 잇기를 잘 한다.’는 말이 옳소이다.”
 양 승상(양소유)이 자세히 보니 과연 얼굴이 익숙한 듯하였다.
 양 승상은 _____을 향해 어디에서 오셨는지를 묻는데, 노승은 양 승상과 평생 알고 지냈는데 자신을 몰라보느냐고 해. 두 사람은 어떤 관계일까? 문득 깨달아 능과 낭자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내가 지난날 토번을 정벌할 때 꿈에 동정 용궁의 잔치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한 화상이 법좌(法座)에 앉아서 경을 강론하는 것을 보았는데 노승이 바로 그 노화상이냐?”
 노승이 박장대소하고 가로되, 노승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헛걸려하는 _____을 보고 박장대소하네.

“옳도다, 옳도다. 비록 그 말이 옳으나 꿈속에서 잠깐 만난 일은 기억하고 십 년 동안 같이 살았던 것은 기억하지 못하니 누가 양 승상을 총명하다 하였는가?”

승상이 망연자실하여 말하기를, 노승은 양 승상이 자신과 십 년 동안 같이 살았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니 어찌 _____하다 할 수 있겠느냐 하고, 승상은 기억이 없어 망연자실한 모습이야.

“소유는 십오륙 세 이전에는 부모의 슬하를 떠난 적이 없고, 십육 세에 급제하여 곧바로 직명을 받아 관직에 있었으니, 동으로 연나라에 사신으로 가고 토번을 정벌하러 떠난 것 외에는 일찍이 경사(京師)를 떠나지 아니하였거늘, 언제 사부와 함께 십 년을 상종하였으리요?” 승상은 연나라, 토번에 간 것 외에 _____를 떠난 적이 없으므로 노승과 십 년 동안 같이 살지 않았다고 이야기해.

노승이 웃으며 말하기를,
 “상공이 아직도 춘몽을 깨지 못하였도다.”
 승상이 말하기를,
 “사부는 어찌하면 저로 하여금 춘몽을 깨게 하실 수 있나이까?”
 노승이 이르기를,
 “이는 어렵지 않다.” 양 승상이 _____에서 깨어나기를 원하자, 노승이 그 바람을 들어주려는 모양이야.

하고 손에 잡고 있던 지팡이를 들어 돌난간을 두어 번 두드렸다.

장면표기 01 양 승상은 노승을 만나 춘몽을 깨기 원한다고 해. 다음 장면은 승상이 _____에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온 상황이니, 여기에서 장면을 끊자! 갑자기 네 골짜기에서 구름이 일어나 누가 위를 뒤덮어 지척을 분별하지 못하였다. 승상이 정신이 아득하여 마치 꿈속에 있는 듯하다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사부는 어찌하여 정도(正道)로 소유를 인도하지 아니하고 환술(幻術)로써 희롱하시나이까?”

승상이 말을 마치지 못하여 구름이 걷히는데 노승은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팔 낭자도 간 곳이 없었다. 승상이 매우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중에 _____이 가득하여 지척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었다가 다시 구름이 걷히자 노승과 _____가 한순간에 없어진 상황이라 양 승상은 매우 놀랐어. 높은 대와 많은 집들이 한순간에 없어지고 자기의 몸은 작은 암자의 포단 위에 앉았는데, 향로에 불은 이미 사라지고 지는 달이 창가에 비치고 있었다.

자신의 몸을 보니 백팔 엄주가 걸려 있고 머리를 손으로 만져 보니 갓 깎은 머리털이 가칠가칠하였으니 완전히 소화상의 몸이요 전혀 대승상의 위기가 아니니, 정신이 황홀하여 오랜 후에야 비로소 제 몸이 연화도량의 성진(性眞) 행자(行者)임을 깨달았다. 노승에 의해 춘몽에서 깨어난 승상은 자신이 연화도량의 _____임을 깨닫게 돼. 자신의 본모습을 깨닫게 된 거지.

그리고 생각하기를, ‘처음에 스승에게 책망을 듣고 풍도옥(鄧都獄)*으로 가서 인간 세상에 환도하여 양가의 아들이 되었다가, 장원급제를 하여 한림학사를 한 후 출장입상(出將入相)*, 공명신퇴(功名身退)*하여 두 공주와 여섯 낭자로 더불어 즐기던 것이 다 하룻밤의 꿈이로다. 이는 필연 사부가 나의 생각이 그릇됨을 알고 나로 하여금 그런 꿈을 꾸게 하시어 인간 부귀와 남녀 정욕이 다 허무한 일임을 알게 한 것이로다.’ 성진은 자신이 _____에 환도하여 양가의 아들로 태어나 팔 낭자와 함께 공명과 부귀를 누렸음을 깨달아. 자신이 꿈속에서 양 승상의 삶을 살게 된 과정과 이유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장면표기 02 성진이 승상의 삶은 하룻밤 꿈에 불과하며, 육관 대사가 인간 부귀와 남녀 정욕의 _____함을 알게 하기 위해 그러한 꿈을 꾸게 한 것임을 깨닫는 장면이야. 이후 성진은 의관을 정제하여 육관 대사가 있는 처소에 나아가지.

성진이 서둘러 세수하고 의관을 정제하여 처소에 나아가니, 제자들이 이미 다 모여 있었다.

육관 대사가 큰 소리로 묻기를,
 “성진아, 인간 부귀를 겪어 보니 과연 어떠하더냐?”
 성진이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을 흘리며 하는 말이,
 “성진이 이미 깨달았나이다. 제자가 불초하여 생각을 그릇되게 하여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인간 세상에서 윤회하는 벌을 받아야 하거늘, 사부께서 자비하시어 하룻밤 꿈으로 제자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사부의 은혜는 천만 겁이 지나도 갚기 어렵나이다.”
 성진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하룻밤 꿈으로 깨달음을 준 육관 대사의 _____에 감사해.

대사가 말하기를,
 “네가 흥을 타고 갔다가 흥이 다하여 돌아왔으니 내가 무슨 간여할 바가 있겠느냐? 또 네가 말하기를, ‘인간 세상에 윤회한 것을 꿈을 꾸었다.’고 하니, 이는 꿈과 세상을 다르다고 하는 것이니, 네가 아직도 꿈을 깨지 못하였도다. 옛말에 ‘장주(莊周)가 꿈에서 나비가 되었다가 다시 나비가 장주가 되었다.’고 하니, 어느 것이 거짓 것이고, 어느 것이 참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니, 이제 성진과 소유에 있어 어느 것이 참이며 어느 것이 꿈이냐?” 육관 대사는 꿈과 _____을 다르다고 하는 성진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다고 해.

성진이 이에 대답하기를,
 “제자 성진은 아득하여 꿈과 참을 분별하지 못하겠사오니, 사부는 설법(設法)을 베풀어 제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

장면표기 03 성진은 눈물을 흘리며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육관 대사에게 _____을 베풀어 달라고 부탁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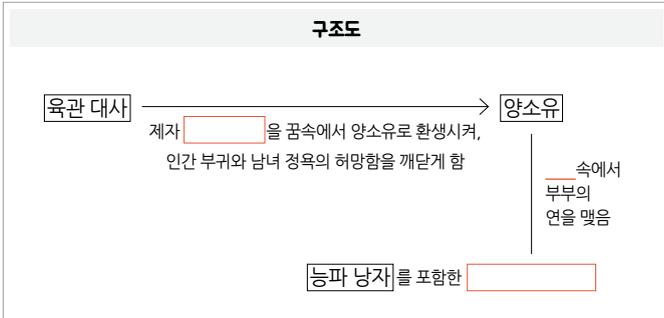
- 김만중, 「구운몽」 -

*풍도옥: 지옥을 이르는 말.
 *출장입상: 나가서는 정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재상이 됨.
 *공명신퇴: 공을 세워서 자기의 이름을 널리 드러낸 후 물러남.



고전소설 독해의 STEP 2

1 인물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구조도의 빈칸에 적절한 말을 채우세요.



2 1~2번 문제를 풀어 보세요.

1. 뒷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성진은 육관 대사의 가르침을 따르려 한다.
- ② 노승은 양소유가 자각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 ③ 성진은 꿈속의 노승이 육관 대사임을 알게 된다.
- ④ 양소유는 팔 낭자와 함께 꿈에서 깨어나고자 한다.
- ⑤ 성진은 양소유로서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다.

2. 문학 개념어 OX 확인 문제

- ① 내적 독백을 통해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
- ② 묘사의 방식을 통해 장면이 전환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 ×

고전소설 독해의 STEP 3

1 선지 판단 공식을 활용하여 빈칸을 채우고 1번 문제의 선지를 OX로 판단해 보세요.

선지 판단의 공식

① **작품** 성진은 육관 대사에게 '제자 성진은 아득하여 꿈과 을 분별하지 못하겠사오니, 사부는 을 베풀어 제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라고 함

선지 → 성진은 육관 대사의 가르침을 따르려 한다. ○ ×

② **작품** 노승은 '상공이 아직도 을 깨지 못하였도다.'라고 하며 양 소유의 꿈을 깨워줌. 꿈에서 깨어난 성진에게 '네가 아직도 꿈을 깨지 못하였도다.~이제 성진과 에 있어 어느 것이 참이며 어느 것이 이냐?'라고 물음

선지 → 노승은 양소유가 자각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 ×

③ **작품** 성진은 꿈에서 깨어난 후 ' 가 나의 생각이 그릇됨을 알고 나로 하여금 그런 꿈을 꾸게 하시어 와 남녀 정욕이 다 일임을 알게 한 것이로다.'라고 깨달음

선지 → 성진은 꿈속의 노승이 육관 대사임을 알게 된다. ○ ×

④ **작품** 양소유가 꿈에서 깨어나자 '노승은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도 간 곳이 없었'음

선지 → 양소유는 팔 낭자와 함께 꿈에서 깨어나고자 한다. ○ ×

⑤ **작품** 성진은 꿈에서 깨어나 ' 에 환도하여 양가의 아들이 되었다가, 장원급제를 하여 한림학사를 한 후~ 두 공주와 여섯 낭자로 더불어 즐기던 것이 다 이로다.'라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봄

선지 → 성진은 양소유로서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다. ○ ×

2 주자

3주차 학습 안내



3주차에서는 <보기>가 포함된 문제의 선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훈련을 할 거야. <보기>는 지문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즉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작가의 의도, 작품에 활용된 기법의 소개 등을 통해 제시된 지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거지. <보기> 문제는 대체로 3점인 경우가 많고 오답률도 높은 편이야. <보기>가 포함된 문제를 풀 때는 선지의 진술이 지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보기>에 제시된 내용과도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지.

이에 대비해 3주차에서는 ‘<보기> 문제 선지 판단의 공식’을 통해 각 선지의 <보기> 속 근거, 작품 속 근거를 확인하여 정리할 수 있도록 했어. 이러한 훈련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작품-<보기>-선지 내용 간의 연결 관계를 유기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오답 선지가 구성되는 방식이 눈에 보일 거야. 3주차 훈련을 통해 <보기> 문제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선지를 판단해 보자.

고전소설 독해의 STEP 1

1 등장인물에 표시를 하고 빈칸에 적절한 말을 채우세요.

‘콩알 하나 없으니 주린 처자를 어이할꼬? 어쩡든 협사촌의 서대주가 도적들과 아래위 낭청을 다니며 함께 도적하여 부유하다 하니 찾아가 얻어 보리라.’ 장끼는 콩알 하나 없는 가난한 처지로 고민하다가 _____을 해서 부유하다는 서대주를 찾아가 보려 해.

하고 협사촌을 찾아가다. 허위허위 이 산 저 산 어정어정 걸어가며 생각하되,

‘이놈이 본디 큰 쥐로 도적질하는 놈이니 무엇이랴 부를꼬? 쥐라 해도 좋지 않고, 서대주라 해도 좋지 않으니, 이놈 부르기 어렵구나. 어쩡든 대접함이 으뜸이라.’ 서대주를 뭐라고 불러야 할지 고민하던 장끼는 서대주를 _____해서 호의를 얻어내려 해.

길을 재촉해 협사촌을 찾아 서대주 집 문 앞에서 장끼 큰기침 두 번 하고,

“서동지 계시오?” 장끼는 서대주를 _____라고 부르네.

하며 찾으니, 이윽고 시비 쥐 나오거늘 장끼 문왈,

“이 댁이 아래위 낭청으로 다니며 관리하시는 서동지 댁이오?”

물으니 시비 답왈,

“어찌 찾으시오?”

장끼 가로되,

“잠깐 뵈오리다.”

이때 서대주 자녀의 재미 보며 아내와 함께 있더니, 시비 와서 왈, “문전에 어떤 객이 왔으되 위풍이 현양(軒昂)*하고 빛갓 쓰고 옥관자 붙이고 여차여차 동지 님을 뵈러 왔다 하나이다.”

서대주 동지란 말을 듣더니 대희하여 외현으로 청하고, 서대주는 찾아온 객이 자신을 _____라고 불렀다는 말을 듣고 크게 (놀라고/기뻐하고) 있어. 정주(頂珠) 탕건 모자 쓰고 평복으로 나아가 장끼를 맞아 예하고 자리를 정하니, 장끼 하는 말이,

“댁이 서동지라 하시오? 나는 양지촌 사는 화충이라고도 하고, 세상에서 부르기를 장끼라고도 혹 꿩이라고도 하는데, 귀책을 찾아 금일 만나니 구면처럼 반갑소이다. 한 번도 뵈지 없으나 평안하시었소?” 장끼는 서대주를 처음 보지만 _____고 하며 안부를 묻고 호감을 표시하고 있어.

서대주 맹랑하다. 탕건을 어루만지며 답왈,

“존객의 이름은 높히 들었더니 나를 먼저 찾아 누지에 와 주시니 황공 감사하오이다.”

장끼 답왈,

“서로 찾기에 선후가 있는 것 아니니 아무커나 반갑다 못하여 진저리 나노라.”

하거늘 서대주 웃으며 온갖 음식으로 대접하고 고금사를 문답하며 장끼를 조롱하며 베타더니, 장끼와 서대주는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가까워졌어.

장끼 콧소리를 내며 말하기를,

“서동지께 청할 말이 있노라. 내 본시 녀덱지 못해 오늘까지 먹지 못하다가 처음 청하오네 양미 이천 석만 빌려주시면 내년 가을에 갚으리니 동지 님 생각에 어떠시오?”

서대주 웃으며 하는 말이,

“속담에 ‘우마(牛馬)도 초분식(草分食)하고, 산저(山猪)도 갈분식(葛分食)이라*.’ 하였거든 우리 사이에 무엇이 어려우리오?”

장끼는 서대주에게 _____를 빌려달라고 하고 서대주는 흔쾌히 빌려줬어.

(중략)

장끼 감사함을 칭사하고 양지촌으로 돌아가니라. 이때 서대주 노비 쥐를 명하여 창고를 열고 이천 석 콩을 배로 옮겨 양지촌으로 보내니라.

장면표기 01 장끼가 서대주를 찾아가 아부를 하여 호감을 얻은 뒤 _____를 빌려 온 하나의 사건이 마무리되고, 이후 장면에서는 ‘_____’로 새로운 사건이 시작됨을 알리고 있어. 따라서 여기서 장면을 나누어야겠지!

각설. 이때 동지촌에 딱부리란 새가 있으되 주먹벚에 흑공단 두루마기, 홍공단 끝동이며, 주둥이는 두 자나 하고 위풍이 현양한 짐승이라. 양지촌 장끼를 찾아가 오래 못 본 인사 하고 하는 말이, “자네는 어찌하여 양식이 저리 풍족하여 쌓아 두었는가?” 동지촌에 사는 _____는 장끼를 오랜만에 찾아와 인사를 하고 어떻게 양식을 _____하게 마련했는지 묻고 있네.

장끼가 협사촌 서대주를 찾아가 양식 빌린 사연을 자세히 말하니, 딱부리 놈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네 마음이 녹녹지 아니하거늘 미천한 도적놈을 무엇이랴 찾았는가?” 딱부리는 도적질을 해서 부를 쌓은 서대주를 _____이라 비난하며, 그를 찾아가 장끼를 (나무라고/시기하고) 있어.

장끼 답왈,

“나도 생각이 있으나 옛글에 ‘교만한 자는 집이 망한다.’ 했고, ‘남을 대접하면 내가 대접을 받는다.’ 했고, 내 가난하여 빌리러 갔기로 저를 대접하여 서동지라 존칭하였더니 대희하여 후대하고 종일 문답하며 여차여차하였노라.” 장끼는 양식을 빌리러 간 인장이었으므로 서대주를 _____라고 존칭하여 불러 _____하였고, 그에 서대주도 자신을 (박하게/후하게) 대접했다고 하지.

하거늘 딱부리 하는 말이,

“자네 일절 감사하도다. 만일 입신양명하면 충신을 험담하여 귀양 보내고 조정을 농권하며 임금을 어둡게 하리도다. 나는 그놈을 찾아가서 서대주라 하고 도적질한 말을 하면 그놈이 겁내어 만석이라도 추심(推尋)*하리라.”

장끼 답왈,

“자네 재주를 몰랐더니 오늘에야 알리도다.” 장끼의 말을 들은 딱부리는 장끼의 행동을 _____하다 비난하며 자신은 _____한 것을 지적하며 겁을 주고, 그것을 빌미로 양식을 받아내겠다고 장담하지.

장면표기 02 _____는 서대주를 대접한 장끼를 비난하며 자신은 서대주를 대접하지 않고 오히려 도적질한 일을 말하여 양식을 얻어내겠다고 했어. 이후 딱부리가 서대주를 찾아가는 사건이 이어지므로 여기서도 장면을 나누어 보자.

딱부리 웃으며 나와 협사촌을 찾아가, 구멍 앞에 나가서 생각을 많으나 이를 갈고 “서대주, 서대주.” 찾으니 이윽하여 시비 쥐 나오며 하는 말이,

“뉘 집을 찾아오시니까?”

딱부리 하는 말이,

“네 명색이 무엇이냐? 이 집이 아래위 낭청으로 다니며 도적질하는 서대주 집이냐? 나는 동지촌 사는 딱장군이니 와 계시다 일러라.” 딱부리는 서대주 집에 찾아가 _____한 것을 지적하며 (거만/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말하는 방식이 중략 전에 장끼가 ‘아래위 낭청으로 다니며 _____하는 서동지 댁’이라고 물었던 것과 크게 다르지?

하거늘 쥐란 놈이 곱을 내어 대답하고 들어가 고하니, 서대주 크게



성내고 분부하는 말이,
 “어떤 놈이든지 잡아들이라.”
 하니 수십 명 범 같은 쥐들이 명을 듣고 딱부리를 에워싸고 결박
 하고 이 뺨 치고 저 뺨 치며 몰아가니 화가 난 서대주는 딱부리를 잡아들이라
 하고, 명을 들은 쥐들은 딱부리를 _____하고 매를 치며 몰아가. 딱부리 애걸하며
 비는 말이,
 “내 무슨 잘못이 있다 이리하시오? 내 손주 노릇할 터이니 놓아
 주고 달아났다 하시오.”
 한데 듣지 않고 잡아들이 서대주 앞에다 꿰리니 서대주 호령하되,
 “이놈! 너는 어인 놈이기에 주인 찾을 때 근본을 해하여 찾으니
 그중에 너 같은 놈은 만단을 내리라.”
 하며 매우 치라 하니 딱부리 머리를 조아리고 애걸하며 빌더라. 딱부
 리는 매를 맞더니 태도가 돌변하여 자신을 _____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이어.
장면묘기 03 서대주를 찾아가는 _____는 도적질한 서대주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
 는데, 이에 화가 난 서대주에게 붙잡혀 _____를 맞는 장면이 이어지면서 지문이 마무리되었어.
 - 작자 미상, 「장끼전」 -

- *현양: 풍채가 좋고 의기가 당당함.
- *우마도 초분식하고, 산저도 갈분식이라: 소와 말도 풀을 나눠 먹고, 산돼지도 짐을 나눠 먹는다.
- *추심: 찾아내어 가지거나 받아 냄.

2 1~2번 문제를 풀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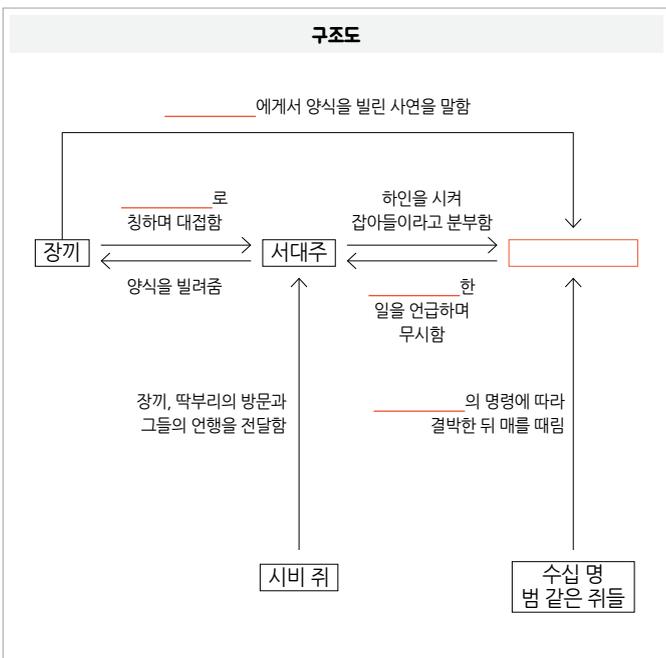
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장끼전」은 ‘까투리’를 중심으로 남존여비와 여성의 개가 금지 같은 가부
 장제 사회의 문제를, ‘장끼’를 중심으로는 몰락 양반의 삶과 조선 후기 향촌
 사회의 다양한 변화상을 형상화했다. 이 대목은 가족의 생계 문제를 걱정하는
 몰락 양반의 출현과 향촌 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신흥 부호의 생활상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신흥 부호의 위세로 인해 빛어지는 신흥 부호와 몰락 양반의
 갈등, 그리고 신흥 부호를 둘러싼 몰락 양반 간의 불화를 그려 내고 있다.

- 장끼가 양식이 떨어져 굶주리는 처자식을 위해 부유한 서대주를 찾아가 양식을 빌리는 장면에서, 가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려는 몰락 양반의 면모를 알 수 있군.
- 서대주가 ‘시비 쥐’를 부리고 복색을 갖추어 손님을 ‘외현’에서 맞이하는 장면에서, 신흥 부호의 생활상을 알 수 있군.
- 서대주를 대접하여 양식을 빌린 장끼에게 딱부리가 ‘간사하도다’라고 언급하는 장면에서, 신흥 부호에 대한 처신을 놓고 몰락 양반 간에 의견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군.
- 서대주의 ‘시비 쥐’가 딱부리에게 골을 내는 장면에서, 몰락 양반의 경제적 곤궁함을 엿보여주는 신흥 부호의 모습을 알 수 있군.
- 서대주가 ‘수십 명 범 같은 쥐들’에게 명령하여 딱부리를 결박하는 장면에서, 향촌 사회에서의 신흥 부호의 위세를 알 수 있군.

고전소설 독해의 STEP 2

1 인물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구조도의 빈칸에 적절한 말을 채우세요.



2. 문학 개념어 OX 확인 문제

- 세밀한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O X
- 속담과 옛글을 삽입하여 인물의 내적 갈등을 강조하고 있다. O X



고전소설 독해의 STEP 3

1 선지 판단 공식을 활용하여 빈칸을 채우고 1번 문제의 선지를 OX로 판단해 보세요.

<보기> 문제 선지 판단의 공식

①

<보기>

「장끼전」은 가족의 _____ 를 걱정하는 _____ 의 출현을 보여 줌



작품

‘공알 하나 없으니 _____ 를 어이할꼬? 어떡든 협사촌의 서대주가 도적들과 아래위 낭청을 다니며 함께 도적하여 부유하다 하니 찾아가 _____ 보리라.’

선지 → 장끼가 양식이 떨어져 굶주리는 처자식을 위해 부유한 서대주를 찾아가 양식을 빌리는 장면에서, 가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려는 몰락 양반의 면모를 알 수 있군.

②

<보기>



작품

‘서대주 자녀의 재미 보며 아내와 함께 있더니, _____ 와서’, ‘서대주 동지란 말을 듣더니 대희하여 _____ 으로 칭하고, 정주 탕건 모자 쓰고 평복으로 나아가 장끼를 맞아’

선지 → 서대주가 ‘시비 쥐’를 부리고 복색을 갖추어 손님을 ‘외한’에서 맞이하는 장면에서, 신흥 부호의 생활상을 알 수 있군.

③

<보기>

「장끼전」은 조선 후기 향촌 사회의 다양한 변화상을 형상화 하면서 _____ 를 둘러싼 몰락 양반 간의 _____ 를 그려 내고 있음



작품

‘자네 마음이 녹녹지 아니하거늘 _____ 을 무엇이라 찾았는가?’, ‘자네 일정 _____ 하도다. 만일 입신양명하면 총신을 험담하여 귀양 보내고 조정을 농권하며 임금을 어렵게 하리로다.’

선지 → 서대주를 대접하여 양식을 빌린 장끼에게 딱부리가 ‘간사하도다’라고 언급하는 장면에서, 신흥 부호에 대한 처신을 놓고 몰락 양반 간에 의견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군.

④

<보기>

「장끼전」은 가족의 생계 문제를 _____ 하는 몰락 양반의 출현과 향촌 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_____ 의 생활상을 보여 주면서 신흥 부호와 몰락 양반 간의 _____ 을 그려 냄



작품

‘ _____ 나오며 하는 말이, “뉘 집을 찾아오시니까?” 딱부리 하는 말이, “네 명색이 무엇이나? 이 집이 아래위 낭청으로 다니며 _____ 집이나? 나는 동지촌 사는 딱장군이니 와 계시다 일러라.” 하거늘 쥐란 놈이 _____ 을 내어 대답하고 들어가’

선지 → 서대주의 ‘시비 쥐’가 딱부리에게 곶을 내는 장면에서, 몰락 양반의 경제적 곤궁함을 업신여기는 신흥 부호의 모습을 알 수 있군.

⑤

<보기>

「장끼전」은 조선 후기 향촌 사회의 다양한 변화상을 형상화 하면서 신흥 부호의 _____ 로 인해 빚어지는 신흥 부호와 몰락 양반 간의 갈등을 그려 냄



작품

‘서대주 크게 성내고 분부하는 말이, “어떤 놈이든지 잡아 들이라.” 하니 수십 명 _____ 들이 명을 듣고 딱부리를 에워싸고 _____ 하고 이 뺨 치고 저 뺨 치며 몰아가니’

선지 → 서대주가 ‘수십 명 범 같은 쥐들’에게 명령하여 딱부리를 결박하는 장면에서, 향촌 사회에서의 신흥 부호의 위세를 알 수 있군.

4주차 학습 안내

4주차에는 지금까지 배운 것을 적용하여 조금 더 수준 높고, 실전적인 학습을 해볼 거야. 우선 4주차 부터는 ‘장면끊기’가 새로운 형태로 제시될 거야. 3주차까지 어떤 기준에 따라 장면을 끊을 수 있는 지를 살펴보았으니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장면을 끊어 가면서 지문의 흐름을 이해해 보자. 이후 ‘장면끊기’ 표에 각 장면의 내용을 정리하면 돼. 장면을 구분하는 단서를 형광펜으로 표시해 두었으니 지문에서 해당하는 부분을 확인하면 빈칸을 채우기 어렵지 않을 거야.

4주차에 수록된 1번 문제들은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비교적 오답률이 높은 것으로 골랐어. 하지만 지금까지 성실하게 학습해 왔다면 2주차와 3주차에 활용된 ‘선지 판단의 공식’ 혹은 ‘<보기> 문제 선지 판단의 공식’을 채워가며 선지의 정·오답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거야. 이와 관련해 해설 책의 ‘함정 피하기’에서 오답을 피하고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해두었으니, 이를 통해 헛갈리거나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알아 보자.

고전소설 독해의 STEP 1

- 1 등장인물에 □ 표시를 하고, 빈칸에 적절한 말을 채우세요.
- 2 시간, 공간, 서술 대상이 바뀌는 곳을 찾아 직접 장면을 3개로 나누어 보세요.

[앞부분 줄거리] 옹고집은 성격이 고약한 부자이다. 어느 날 옹고집 앞에 가짜 옹고집이 나타나, 서로가 자신이 진짜라고 주장한다.

두 옹고집이 송사 가는 제, 읍내를 들어가니 짚옹고집 거동 보소. 가짜 옹고집은 □으로 만들어진 존재라 서술자가 짚옹고집이라 부르는 것 같아. 주저 없이 제가 앞에 가며 읍의 촌가인 하나와 만나 보면 꺾뺨 반겨 두 손을 잡고, “나는 가변을 송사하러 가는지라. 자네와 나와 아무 연분에 서로 알아 죽마고우로 지냈으니 나를 몰라볼쏘냐.”

또 하나를 보면, “자네 내게서 아무 연분에 돈 오십 냥을 취하여 갔으니 이참에 못 주겠느냐. 노갓돈 보태 쓰게 하라.”

또 하나 보면, “자네 쥐골뽕 눈 두 섬지기 이때까지 소작할 제, 거년 선자(先資)* 스물닷 말을 어찌 아니 보내는가.” 짚옹고집은 참옹고집보다 □에 가며 마을 사람들을 보면 먼저 인사하거나 이런 저런 말을 건네.

이처럼 하니 참옹고집이 짚옹고집을 본즉 낱낱이 내 소견대로 내가 할 말을 제가 먼저 하니 기가 질려 뒤에 오며, 실성한 사람같이, 아는 사람도 오히려 짚옹고집같이도 모르는 지라. □은 자신과 마을 사람들 사이의 일을 모두 알고 있는 짚옹고집을 보며 □가 질렸어.

짚옹고집이 노변에서 지나가는 사람 데리고 하는 말이, “가운이 불길하여 어떠한 놈이 왔으되 용모 나와 비슷해 제가 내라 하고 자칭 옹고집이라 하기로, 억울한 분을 건디지 못하여 일체 구별로 송사하러 가는지라. 뒤에 오는 사람이 기네. 자네들도 대소간 눈이 있거든 혹 흑백을 가릴 쏘냐.”

참옹고집이 뒤에 오면서 기가 막히고 얼척도 없어 말도 못하고 울음 울 제, 행인들이 이어 보고 하는 말이, “누가 알아 보리오. 뉘 아들인지 알 수가 없다. 아마도 상동이란 말밖에 또 하리오.” 참옹고집은 자신이 진짜라는 짚옹고집의 말에 화가 나고 억울해. 행인들은 참옹고집과 □의 생김새가 똑같이 누가 알아보겠느냐며 헛갈려 하지.

(중략)

짚옹고집 반만 웃고 집으로 돌아와서 바로 내정으로 들어가니 처자 권속이 내달아 잡고 들어가니, “하늘도 무심치 아니하기로 내 좋은 형세와 처자를 빼앗기지 아니하였다.”

송사를 이긴 내력을 말하니 처자 권속이며 상하 노복 등이 참옹고집으로 알고, 마누라는, “우리 서방님이 그런 고생이 또 있을까.” 못 아들 나서며, “그런 자식에게 아버지가 큰 봉채를 보았다.”

노복 좋으며 마을 사람들이 다 칭찬하거늘, (참옹고집/짚옹고집)이 진짜 옹고집으로 인정받고 □에서 이저 집으로 돌아온 상황인가 봐. 짚옹고집이, “내가 혈혈단신으로 자수성가하였기로 전곡을 과연 아끼 줄만 알았더니 내빈 왕객 접대 상과 만가 동냥 거지들을 독하게 박대

하였더니 인심부득 절로 되어 이런 재변이 난 듯싶으니, 사람 되고 개과천선 못할쏘냐. 오늘부터 재물과 곡식을 흠어 활인구제(活人救濟)하리라.” 짚옹고집의 말을 통해 참옹고집은 그동안 인심이 박하게 살아왔음을 알 수 있어. 짚옹고집은 참옹고집의 재물과 □을 풀어 주변 사람들을 □하고자 하네.

전곡을 흠어 사방에 구차한 사람을 구제한다 말이 낭자하니 팔도 거지들과 각 절 유걸승들이 구름 모이듯 모여드니 백 냥 돈 천 냥 돈을 흠어 주니 옹고집은 인심 좋단 말이 낭자하더라.

하루는 주효를 낭자케 장만하고 원근에 모모한 친구며 사방 사람을 청좌하여 대연을 배설할 제, 이때의 참옹고집 전전걸식 하다가 맹랑촌 옹고집 활인구제한다 말 듣고 분심으로 하는 말이,

“남의 재물 갖고 제 마음대로 쓰는 놈은 어떤 놈의 팔자인고. 찾아가서 내 집 망중 보고 죽자.” 참옹고집은 자신의 □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짚옹고집의 소식을 듣고 분노해. 죽더라도 자신의 □에 찾아가서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보고 싶어하지.

하고 죽장망해로 찾아가 갈 제, 짚옹고집 도술 보고 근처에 참옹고집 온 줄 알고 사환을 분부하되,

“오늘 큰 잔치에 음식도 낭자하고 걸인도 많을 제, 타일 천하게 다투던 거짓 옹가 놈이 배도 고프고 기한(飢寒)을 견디지 못하여 전전걸식 다닐 제, 잔치 소문을 듣고 마을 근처에 왔으나 차마 못 들어오는가 싶으니 너희 등은 가서 데려오라. 일변 생각하면 되도 못할 일 하다가 중장(重杖)만 맞았으니 불쌍하다.” 짚옹고집은 □로 참옹고집이 근처에 온 줄 알게 돼. 그런데 참옹고집을 내쫓으려 하기는커녕 □을 시켜 참옹고집을 데려오라고 하네.

사환 등이 영을 들고 사방으로 나가 보니 과연 마을 뒷산에 앉아 잔치하는 데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앉았거늘 사환들이 바로 가서 영겁결에 배례하고 문안하니, 슬프다. 참옹고집이 대성통곡 절로 난다. 참옹고집은 쫓겨난 자신의 처지와는 상반되게 □가 벌어진 자신의 집을 보자 설움이 복받쳐 □해.

사환들이 가자 하니, “갈 마음 전혀 없다.”

여러 놈이 부축하여 들어가서 좌상에 앉으니 짚옹고집 일어 서며 인사 후에,

“네 들어라. 형세 있어 좋다 하는 것이 활인구제하여 만인 적선이 으뜸이거늘 천여 석 거부로서 첫째로는 부모 박대 하니 세상에 용납지 못할 놈이요, 둘째는 유걸산승 옥보이니 불도가 어찌 허사리오. 짚옹고집은 참옹고집이 □(큰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를 박대하고 유걸산승을 목보였던 잘못을 이야기해. 우리 절 도승이 나를 보내어 묘하신 불법으로 가르쳐서 너의 죄목을 잡아 아주 죽여 세상에 영영 자취 없게 하여 세상 사람에게 모범이 되게 하라 하시거늘 너를 다시 세상에 내어 보내기는 나의 어진 용심으로 살린 것이니, 이만 해도 후생에게 너 같은 행실을 징계한 사례가 될 듯싶으니 이후는 아무쪼록 개과하라.” 짚옹고집은 □이 참옹고집을 벌하기 위해 보낸 것이구나. 짚옹고집은 참옹고집이 □해서 좋은 사람이 될 것을 바라고 있어.

하고, 좌상에 나앉으며 문득 자빠지니 허수아비 찰벼 짚뭉치 이라.

이로 좌상이 다 놀라 공고를 하고 옹고집이 이날부터 개과 천선하여 세상에 전하여 일가친척이며 원근친고 사람에게 인심을 주장하니 옹고집의 인심을 만만세에 전하더라.



- 작자 미상, 「옹고집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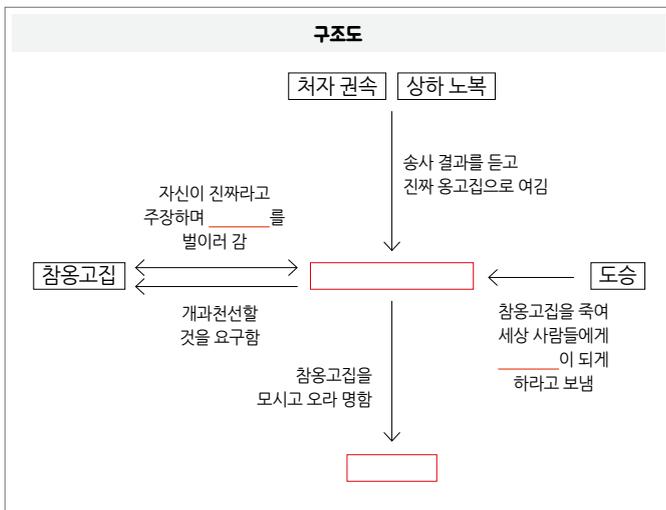
*선자 :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드는 돈.

고전소설 독해의 STEP 2

1. 형광펜이 그어진 부분을 근거로 장면을 다시 한번 나누어 보고, 장면별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장면표기 01	참. _____ 옹고집을 가리기 위해 두 옹고집이 송사하러 가는 길에, 진짜 인척하는 _____ 을 보고 참옹고집은 어이가 없어 억울해 함
장면표기 02	송사에서 이긴 _____ 은 집으로 돌아와서 재물과 곡식을 풀어 _____
장면표기 03	하루는 _____ _____ _____

2. 인물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구조도의 빈칸에 적절한 말을 채우세요.



3. 1~2번 문제를 풀어 보세요.

1. <보기>는 「옹고집전」 이본의 일부이다. [B]와 <보기>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참옹고집 듣기를 다하여 천방지방 도사 앞에 급히 나아가 합장배례하며 공손히 하는 말이, “이놈의 죄를 생각하면 천사(千死)라도 무석(無惜)이요 만사라도 무석이나 명명하신 도덕하에 제발 덕분 살려 주오. 당상의 늙은 모친 규중의 어린 처자 다시 보게 하옵소서. 원건지 하온 후 지하에 돌아가도 여한이 없을까 하나이다. 제발 덕분 살려 주옵소서.”

만단으로 애걸하니 도사 하는 말이, “천지간에 몹쓸 놈아. 인제도 팔십 당년 늙은 모친 냉돌방에 구박할까, 불도를 능멸할까. 너 같은 몹쓸 놈은 응당 죽일 것이로되 정상(情狀)이 불쌍하고 너의 처자 가여운 고로 놓아주니 돌아가 개과천선하라.”

부적을 써 주며 왈, “이 부적을 몸에 붙이고 네 집에 돌아가면 괴이한 일 있으리라.”

하고 홀연 간데없거늘 참옹고집 즐겨 돌아와서 제 집 문전 다다르니 고루거 각 높은 집에 청풍명월 맑은 경은 옛 놀던 풍경이라.

- ① ‘참옹고집’을 살려 두는 이유로 [B]는 ‘나의 어린 용심’을, <보기>는 ‘정상’ 불쌍’함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 [B]에서는 용서하는 이의 마음을 고려했고, <보기>에서는 용서받는 이의 처지까지도 고려하였군.
- ② ‘참옹고집’을 살려 두는 이유로 [B]는 ‘이만해도 후생에게’ 징계한 사례’가 됨을, <보기>는 ‘너의 처자 가여움’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 [B]에서는 징계의 사회적 효용이, <보기>에서는 징계로 인한 가족의 피해가 고려되었군.
- ③ ‘참옹고집’의 악행으로 [B]는 ‘부모 박대’를, <보기>는 ‘모친’ ‘구박’을 거론하는 것으로 보아, [B]와 <보기>에서 모두 ‘참옹고집’의 비인륜적 행위가 징계의 사유에 포함되었군.
- ④ ‘참옹고집’에게 개과천선하라는 요청이 [B]와 <보기> 모두 인물의 발화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B]와 <보기>에서 모두 인물의 발화는 ‘참옹고집’이 용서를 구하기 시작하는 계기에 해당하는군.
- ⑤ ‘참옹고집’을 훈계하던 존재가 [B]에서는 ‘허수아비’로 변하고, <보기>에서는 ‘홀연’ 사라지는 것으로 보아, [B]와 <보기>에서 모두 신이한 사건이 벌어지는군.

2. 문학 개념어 OX 확인 문제

- ① [A]는 송사 가는 이의 답답한 심정이 서술자에 의해 직접 드러난다. O X
- ② [A]는 송사 가는 길에 새롭게 등장한 인물의 외양이 묘사된다. O X



고전소설 독해의 STEP 3

1 선지 판단 공식을 활용하여 빈칸을 채우고 1번 문제의 선지를 OX로 판단해 보세요.

<보기> 문제 선지 판단의 공식

①

<보기>

'너 같은 몸쓸 놈은 응당 죽일 것이로되 정상이가 _____ 하고'

+

작품

'너의 죄목을 잡아 아주 죽여 세상에 영영 _____ 없게 하여 세상 사람에게 모범이 되게 하라 하시거늘 너를 다시 _____ 에 내어 보내기는 나의 어진 _____ 으로 살린 것이니.'

선지➔

'참옹고집'을 살려 두는 이유로 [B]는 '나의 어진 응심'을, <보기>는 '정상이 불쌍함'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 [B]에서는 용서하는 이의 마음을 고려 했고, <보기>에서는 용서받는 이의 처지까지도 고려하였군.

②

<보기>

'너의 _____ 가여운 고로 놓아주니'

+

작품

'이만해도 후생에게 너 같은 행실을 _____ 한 사례가 될 듯싶으니 이후는 아무쪼록 개과하라.'

선지➔

'참옹고집'을 살려 두는 이유로 [B]는 '이만해도 후생에게 '징계한 사례'가 됨, <보기>는 '너의 처자 가여움'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 [B]에서는 징계의 사회적 효용이, <보기>에서는 징계로 인한 가족의 피해가 고려되었군.

③

<보기>

'천지간에 몸쓸 놈아. 인제도 팔십 당년 늙은 _____ 냉돌 방에 _____ 할까.'

+

작품

'첫째로는 _____ 하니 세상에 용납지 못할 놈 이요.'

선지➔

'참옹고집'의 악행으로 [B]는 '부모 박대'를, <보기>는 '모친 '구박'을 거론하는 것으로 보아, [B]와 <보기>에서 모두 '참옹고집'의 비인륜적 행위가 징계의 사유에 포함되었군.

④

<보기>

'참옹고집 듣기를 다하여 천방지방 도사 앞에 급히 나아가~ 만단으로 _____ 하니 도사 하는 말이, "천지간에 몸쓸 놈아. 인제도 팔십 당년 늙은 모친 냉돌방에 _____ 할까. 불도를 능멸할까.~돌아가 _____ 하라."

+

작품

' _____ 일어서며 인사 후에, "네 들어라. 형세 있어 좋다 하는 것이 _____ 하여 만민적선이 으뜸 이거늘 천여 석 거부로서 첫째로는 부모 박대하니 세상에 용납지 못할 놈이요, 둘째는 유걸상승 욕보이니 _____ 가 어찌 허사리오.~이후는 아무쪼록 _____ 하라."

선지➔

'참옹고집'에게 개과천선하라는 요청이 [B]와 <보기> 모두 인물의 발화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B]와 <보기>에서 모두 인물의 발화는 '참옹고집'이 용서를 구하기 시작하는 계기에 해당하는군.

⑤

<보기>

'부적을 써 주며 왈, "이 부적을 몸에 붙이고 네 집에 돌아 가면 괴이한 일 있으리라." 하고 _____ 간데없거늘'

+

작품

"이후는 아무쪼록 개과하라." 하고, 좌상에 나앉으며 문득 자빠지니 허수아비 찰벼 _____ 이라.'

선지➔

'참옹고집'을 훈계하던 존재가 [B]에서는 '허수아비'로 변하고, <보기>에서는 '홀연' 사라지는 것으로 보아, [B]와 <보기>에서 모두 신이한 사건이 벌어 지는군.

고전소설 독해의 STEP 1

1 다음 글을 읽고 등장인물을 잘 파악했는지, 빈칸에 적절한 말을 채웠는지 확인해 보세요.

고3 2009학년도 7월 학평 - 작자 미상, 「서대주전」

타남주가 작은 다람쥐에게 등불을 환하게 밝히게 하니 좌우의 기물, 주옥, 패물, 초구, 단필 등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털렸음을 알았다. 상하가 놀라 당황하며 얼굴색이 달라지고 있는데, 한 작은 다람쥐가 허겁지겁 달려와 고하였다.

“바위 위에 쌓아 놓은 알밤도 다 잃어버리고 하나도 남김이 없습니다.”

타남주가 이 말을 듣고는 뼈에 사무치듯 크게 울부짖었다.

“주옥과 보패야 설령 도적이 맞았을지언정 어찌 말할 것이라! 하지만 흉년으로 인해 굶주리는 시절임에도 여러 해에 걸쳐 쌓아두었던 곡식을 하룻밤 사이에 강도에게 죄다 잃고 말았던 말인가! 이 같은 흉황한 때에 장차 수많은 족속이 생활을 지탱하고 보존할 방도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눈물이 흘러내려 옷깃을 적시니, 좌중*의 여러 무리들도 슬퍼하고 놀래어 입을 다문 채 말이 없는 것이 마치 병어리들의 무리와 같았다. 타남주와 그의 족속들은 강도에게 주옥과 보패뿐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모아 온 곡식을 도둑맞아 버렸어. 타남주 등은 이에 놀라 당황했고, 흉황한 때에 족속이 생활을 지탱할 방법을 잃은 슬픔과 놀람에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에, 타남주는 다시 한참 만에 말하였다.

“근래 들으니, 농서 소토산(小兔山)의 절벽 밑에 새로 모여든 강도 중 서대주란 이름난 놈이 도적놈들을 불러 모아서, 위로는 주군 현읍(州郡縣邑)에서부터 아래로는 마을의 부호나 서인에 이르기까지 절도하지 않음이 없다고 한다. 이번엔 우리가 물건을 잃은 것도 실로 다른 놈이 아니라 반드시 그 놈의 소행일 것이다. 즉시 원님께 고소장을 먼저 올려, 하나하나 잃고 그름을 따지어 바로 잡으시도록 해야겠다.” 타남주는 강도 사건의 범인으로 서대주를 지목하고 원님께 고소장을 올리겠다고 해.

좌중에 있던 한 늙은 다람쥐가 황급히 말하였다.

“주옹(主翁) (=타남주)께서 하신 말씀이야 진실로 옳습니다. 그렇지만 옛말에 ‘그 도적질한 바를 밝히어야 도적이 곧 굴복한다.’ 라고 했습니다. 대저 도적을 잡는 법은 이전의 행각*으로 잡는 것이지 앞으로 일어날 일로는 잡지 못할 것이니, 그 도적을 보지도 않고 먼저 고소를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듯합니다. 우리들 중 영리하고 판단력 있는 자가 서대주가 있는 소굴로 가서 그 허실*을 살펴 들은 연후*에 고소를 하여도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 타남주의 말에 한 늙은 다람쥐는 서대주를 찾아서 그를 살피본 이후에 고소를 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말해.

장면묘기 1 타남주가 다스리는 곳에 도적이 들어 온갖 보물과 곡식을 잃어버린 사건이 제시되었어. 타남주는 서대주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바로 고소장을 올리려 하지만, 한 늙은 다람쥐의 의견에 따라 우선 영리한 자를 보내 허실을 살피기로 해. 이후 중략 줄거리가 나오고 서대주가 붙잡혀 온 이후의 사건이 전개되니 여기에서 장면을 끊자.

[중략 줄거리] 타남주는 서대주 소굴에 작은 다람쥐를 보내 절취* 사건의 전모를 확인한 후 고소장을 올린다. 이에 원님은 사령에게 서대주를 붙잡아 올 것을 명령한다. 붙잡혀 온 서대주는 타남주와 함께 원님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서대주가 잡힌 후 절취 사건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어.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재판 과정이 자세하게 나타나겠지?

“저놈이 올린 고소야말로 어찌 잊분을 속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또한 근년 이래 흉년이 극심하여 살아나갈 길이 없는 터에 어떻게 알밤을 갈무리*해둘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더욱 맹랑한 말입니다. 서대주는 타남주의 고소가 거짓말이라고 주장해. 근거 ①은 흉년이 극심한 때에 곡식을 쌓아둘 수 없었을 것이므로, 자신이 타남주의 곡식을 훔쳤다는 것은 헛된 거짓말이라는 거야.

저는 본시 대대로 부유하여 이와 같은 흉년에 한 홉조차 다른 것들한테 꾸지 않아도 되는데, 빌어먹는 놈의 밤을 훔쳤다는 것이 어찌 옳겠습니까? 근거 ②는 서대주는 대대로 부유하여 곡식을 꾸거나 훔칠 필요가 없었는 거야. 이놈의 평상시 소행을 제가 하나하나 다 아뢰겠나이다. 매년 봄여름이 되면 농사 잘 짓는 자들을 널리 구하여 밤낮으로 가을걷이를 한 후에는, 그들 중에서 절름발이, 도둑놈, 귀머거리, 맹인, 쓸모없는 늙은 할미는 쫓아내어 흩어지게 하였는데, 또 봄여름이면 이와 같이 그대로 하였습니다. 매년 겨울이 되면 이들을 마을에 떠돌아다니는 거지가 되게 하여, 보는 자가 차마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짓을 행하였기 때문에 분개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마침 사냥하러 나갔을 때, 소토산 원편의 용강산(龍岡山) 기슭에서 만나고도 인사조차 하지 않기에 그 행실머리 없음을 아주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A]

그 후로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알지 못한 채 항상 분노의 마음을 품고는, 사리에 맞지 아니한 터무니없는 말로 저를 얹어매는, 도리에 어긋난 간악한 송사를 꾀했으니, 세상 천지에 이와 같은 맹랑하고 무뢰한 놈이 있겠습니까? 근거 ③에서는 타남주의 잘못된 행실을 나열한 후, 과거에 서대주가 이를 꾸짖은 적이 있기 때문에 타남주가 이에 원한을 품고 간악한 송사를 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제가 비록 매우 졸렬하기는 하지만 역시 대대로 공훈이 있는 가문의 후손으로서, 이러한 무도하고 못난 놈한테 구차하게 고소를 당하여 선조의 공훈에 더럽힘을 끼치고 관정을 소란스럽게 하오니, 죽으려고 하여도 죽을 만한 곳이 없어서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하옵니다. 밝게 살피시는 원님께 얹드려 바라컨대, 사정을 살피시어 원한을 풀어 주옵소서.”

서대주가 옷섶을 고쳐 여미며 단정히 꿇어앉았는데, 뾰족한 입이 오물거리고 두 귀가 발췌거리며 두 눈이 깜짝거리면서 두 손을 모아 슬피 빌고 눈물이 흘러내려 옷깃을 적시니, 보는 자가 더할 나위 없이 애처롭고 불쌍하다고 할 만한 것이었다. 서대주는 원님 앞에 꿇어앉아 슬피 빌며 자신의 억울함을 아뢰고 자신의 원한을 풀어 달라고 말하고 있어. 타남주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서대주의 말과 애처롭게 보이는 행동에서 서대주의 교활한 성격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군.



원님이 서대주의 진술하는 말을 들으니 말마다 사리에 꼭 들어맞고, 형세가 본디부터 그러하여 죄를 주기도 어려워, 결박한 것을 풀고 씩은 큰 칼을 벗겨 주고는, 술을 내려주어 놀랜 바를 진정케 하고 특별히 놓아주었다. 원님도 서대주의 진술을 듣고 죄를 주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술을 내려주고는 그를 놓아주었다고 해. 타남주는 도리에 어긋난 간악한 소송을 한 죄로 몽둥이 세 대를 맞고 멀리 떨어진 외딴 섬으로 귀양을 가니, 서대주가 거둬거둬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갔다. 재판 결과 타남주가 간악한 소송을 벌인 죄를 받고 귀양을 가게 되었어. 원님이 서대주의 말만 듣고 잘못된 판결을 내린 거야.

장면표기 02 서대주를 붙잡아 재판을 하게 되었지만, 억울해하며 슬피 비는 서대주의 말을 들은 원님은 오히려 타남주에게 벌을 주고 귀양을 보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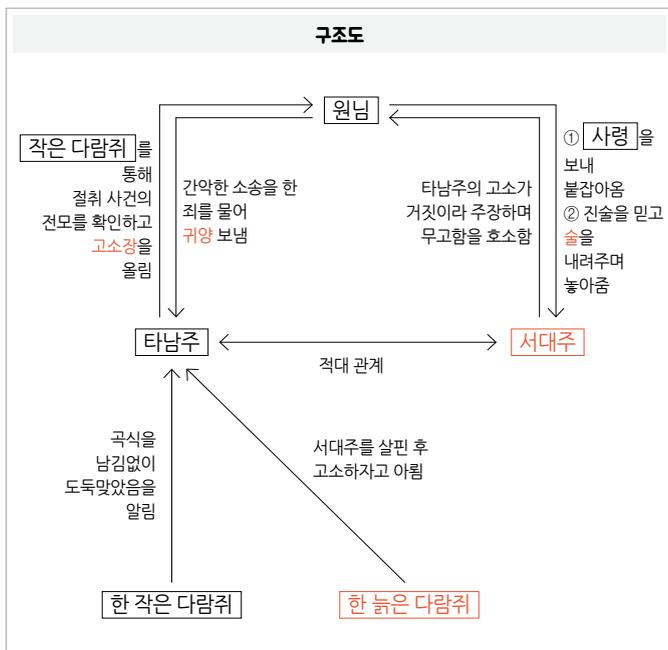
- 작자 미상, 「서대주전(鼠大州傳)」-

고전 필수 어휘

- *좌중: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 또는 모여 앉은 여러 사람.
- *행각: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 어떤 목적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님.
- *허실: 참과 거짓을 아울러 이르는 말.
- *연후: 그런 뒤.
- *절취: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치어 가짐.
- *갈무리: 물건 따위를 잘 정리하거나 간수함.

고전소설 독해의 STEP 2

1 구조도의 빈칸에 적절한 말을 채웠는지 확인해 보세요.



2 1~2번 문제의 정답과 해설을 확인해 보세요.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정답풀이

② 타남주는 서대주가 절취 사건의 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타남주는 '새로 모여든 강도 중 서대주란 이름난 놈이~이번에 우리가 물건을 잃은 것도 실로 다른 놈이 아니라 반드시 그 놈의 소행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서대주 소굴에 작은 다람쥐를 보내 절취 사건의 전모를 확인한 후 고소장을 올리므로 타남주는 서대주가 절취 사건의 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원님은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원님은 서대주의 말만 듣고 잘못된 판결을 내리고 있으나 윗글에 원님이 서대주의 뇌물을 받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서대주는 원님이 사건의 진위를 밝혀낼 것을 기대하고 있다.

서대주는 타남주를 모함하며 '두 손을 모아 슬피 빌고 눈물이 흘러내려 옷깃을 적시'는 모습을 한 채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원님이 사건의 진위를 밝혀낼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서대주는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 마을 부호의 재물을 탈취했다.

윗글에서 서대주가 무슨 이유로 타남주의 보화와 곡식 등을 빼앗아 취했는지는 알 수 없다.

⑤ 타남주는 모든 것을 도둑맞은 절박한 상황에서도 의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타남주는 주옥과 보배뿐 아니라 곡식까지 도둑맞은 소식을 듣고 '뼈에 사무치듯 크게 울부짖고' 있으므로 의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 인물의 말하기 방식 OX 확인 문제

① X

근거 서대주는 원님에게 타남주가 '올린 고소야말로' '윗분을 속인' '맹랑한 말'이라고 하며 여러 근거를 들어 타남주의 고소가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자신의 '원한을 풀어' 달라고 요청할 뿐, 타남주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

② O

근거 서대주는 자신이 타남주의 재물을 훔쳤다는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알밤을 갈무리해' 두었다는 타남주의 주장이 허황된 말이며, 타남주의 '평상시 소행'이 바르지 못했고, 타남주가 자신에게 '항상 분노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에 '사리에 맞지 아니한 터무니없는 말로 저를 얹어매는, 도리에 어긋난 간악한 송사를 꾀'했다며 모함함.

고전소설 독해의 STEP 1

1 다음 글을 읽고 등장인물을 잘 파악했는지, 빈칸에 적절한 말을 채웠는지 확인해 보세요.

고3 2019학년도 6월 모평 - 작자 미상, 「옹고집전」

[앞부분 줄거리] **옹고집** (=참옹고집)은 성격이 고약한 부자이다. 어느 날 옹고집 앞에 **가짜 옹고집** (=참옹고집)이 나타나, 서로가 자신이 진짜라고 주장한다.

두 옹고집이 **송사*** 가는 **제**, 읍내를 들어가니 **짚옹고집** 거동 보소. **가짜 옹고집**은 **짚**으로 만들어진 존재라 서술자가 **짚옹고집**이라 부르는 것 같아. 주저 없이 제가 앞에 가며 읍의 촌가인 하나와 만나 보면 깜짝 반겨 두 손을 잡고, “나는 **가번***을 송사하러 가는 지라. 자네와 나와 아무 연분에 서로 알아 죽마고우*로 지냈으니 나를 몰라볼쏘냐.”

또 하나를 보면, “자네 내게서 아무 연분에 돈 오십 냇을 취하여 갔으니 이참에 못 주겠느냐. **노жат돈*** 보태 쓰게 하라.”

또 하나 보면, “자네 쥐끓평 논 두 섬지기 이때까지 **소작*** 할 제, 거년 선자(先資)* 스투뎃 말을 어찌 아니 보내는가.” **짚옹고집**은 **참옹고집**보다 앞에 가며 마을 사람들을 보면 먼저 인사하거나 이런저런 말을 건네.

이처럼 하니 **참옹고집**이 **짚옹고집**을 본즉 낱날이 내 소견* 대로 내가 할 말을 제가 먼저 하니 기가 질려 뒤에 오며, 실성한 사람같이, 아는 사람도 오히려 **짚옹고집**같이도 모르는 지라. **참옹고집**은 자신과 마을 사람들 사이의 일을 모두 알고 있는 **짚옹고집**을 보며 기가 질렸어.

짚옹고집이 노변에서 지나가는 사람 데리고 하는 말이, “가운이 불길하여 어떠한 놈이 왔으되 **용모** 나와 비슷해 제가 내라 하고 자칭 **옹고집**이라 하기로, 억울한 분을 견디지 못하여 일체 구별로 송사하러 가는지라. 뒤에 오는 사람이 기네. 자네들도 대소간 눈이 있거든 **혹** **흑백**을 가릴 쏘냐.”

참옹고집이 뒤에 오면서 기가 막히고 얼척도 없어 말도 못하고 울음 울 제, **행인**들이 이어 보고 하는 말이, “누가 알아 보리오. **뉘** 아들인지 알 수가 없다. 아마도 **상동**이란 말밖에 또 하리오.” **참옹고집**은 자신이 진짜라는 **짚옹고집**의 말에 화가 나고 억울해. **행인**들은 **참옹고집**과 **짚옹고집**의 생김새가 똑같아 누가 알아보겠느냐며 **헛갈려** 하지.

장면표기 01

(중략)

짚옹고집 반만 웃고 **짚**으로 돌아와서 바로 **내정***으로 들어가니 **처자 권속**이 내달아 잡고 들어가니, “하늘도 무심치 아니하기로 내 좋은 형세와 처자를 빼앗기지 아니하였다.”

송사를 이긴 내력을 말하니 처자 권속이며 **상하 노복*** 등이 **참옹고집**으로 알고, 마누라는, “우리 서방님이 그런 고생이 또 있을까.” 못 아들 나서며, “그런 자식에게 아버지가 큰 봉채를 보았다.”

노복 종이며 마을 사람들이 다 칭찬하거늘, **짚옹고집**이 진짜 **옹고집**으로 인정받고 **송사**에서 이겨 **집**으로 돌아온 상황인가 봐. **짚옹고집**이,

“내가 **혈혈단신**으로 자수성가하였기로 전곡을 과연 아낄 줄만 알았더니 내빈 왕객 접대 상과 만가 동냥 거지들을 독하게 박대 하였더니 **인심부득** 절로 되어 이런 재변이 난 듯싶으니, 사람 되고 개과천선 못할쏘냐. 오늘부터 재물과 곡식을 흠어 **활인구제** (活人救濟)하리라.” **짚옹고집**의 말을 통해 **참옹고집**은 그동안 **인심**이 박하게 살아 왔음을 알 수 있어. **짚옹고집**은 **참옹고집**의 재물과 곡식을 흠어 주변 사람들을 구제 하고자 하네.

전곡을 흠어 사방에 구차한 사람을 구제한다던 말이 낱자하니 팔도 거지들과 각 절 유걸승들이 구름 모이듯 모여드니 **백 냇 돈 천 냇 돈**을 흠어 주니 **옹고집**은 **인심** 좋단 말이 낱자하더라.

장면표기 02

하루는 **주효***를 낱자케 **장만**하고 **원근**에 모모한 친구며 사방 사람을 **청좌**하여 대연을 **배설***할 제, 이때의 **참옹고집** 전전걸식 하다가 **맹랑**춘 **옹고집** **활인구제**한단 말 듣고 **분심**으로 하는 말이,

“**남**의 재물 갖고 제 마음대로 쓰는 **놈**은 어떤 **놈**의 팔자인고. 찾아가서 내 **집** **망종*** 보고 죽자.” **참옹고집**은 자신의 **재물**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짚옹고집**의 소식을 듣고 분노해. 죽더라도 자신의 **집**에 찾아가서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보고 싶어하지.

하고 **죽장**망혜*로 찾아갈 제, **짚옹고집** 도술 보고 근처에 **참옹고집** 온 줄 알고 **사환***을 **분부**하되,

“오늘 큰 잔치에 음식도 낱자하고 걸인도 많을 제, 타일 천하게 다투던 **거짓** **옹가** **놈** (=참옹고집)이 배도 **고프고** **기한**(飢寒)*을 견디지 못하여 전전걸식 다닐 제, 잔치 소문을 듣고 마을 근처에 왔으나 차마 못 들어오는가 싶으니 너희 등은 가서 데려오라. 일변 생각하면 되도 못할 일 하다가 **중장**(重杖)*만 맞았으니 불쌍하다.” **짚옹고집**은 **도술**로 **참옹고집**이 근처에 온 줄 알게 돼. 그런데 **참옹고집**을 내쫓으려 하기는커녕 **사환**을 시켜 **참옹고집**을 데려오라고 하네.

사환 등이 영을 들고 **사방**으로 나가 보니 과연 마을 뒷산에 앉아 잔치하는 데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앉았거늘 **사환**들이 바로 가서 **영**겹겹에 **배**레하고 **문안**하니, 슬프다. **참옹고집**이 **대성**통곡 **절로** 난다. **참옹고집**은 **꽃**겨난 자신의 **처지**와는 **상반**되게 **잔치**가 벌어진 자신의 **집**을 보자 **설움**이 **복받쳐** **대성**통곡해.

사환들이 가자 하니, “갈 마음 전혀 없다.”

여러 **놈**이 **부축**하여 들어가서 **좌상**에 앉으니 **짚옹고집** 일어 서며 **인사** 후에,

“네 들어라. **형세** 있어 좋다 하는 것이 **활인구제**하여 **만인** 적선이 으뜸이거늘 천여 석 **거부**로서 **첫째**로는 **부모** 박대 하니 **세상**에 **용납**지 못할 **놈**이요, 둘째는 **유걸**산승 **육보**이니 **불도**가 어찌 **허사**리오. **짚옹고집**은 **참옹고집**이 **거부**(큰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박대**하고 **유걸**산승을 **육보**였던 **잘못**을 이야기해. 우리 절 **도승**이 나를 보내어 **묘**하신 **불법**으로 가르쳐서 너의 **죄**목을 잡아 아주 죽여 **세상**에 **영**영 **자취** 없게 하여 **세상** 사람에게 **모범**이 되게 하라 하시거늘 너를 다시 **세상**에 내어 보내기는 나의 **어**진 **용**심으로 **살**린 것이니, 이만 해도 **후생**에게 너 같은 **행**실을 **징**계한 **사**례가 될 듯싶으니 이후는 **아무**쪼록 **개과**하라.” **짚옹고집**은 **도승**이 **참옹고집**을 **벌**하기 위해 **보**낸 것이구나. **짚옹고집**은 **참옹고집**이 **개과**해서 **좋은** 사람이 될 것을 **바**라고 있어.

[B]

하고, **좌상**에 **나**았으며 **문**득 **자**빠지니 **허수**아비 **찰**벼 **짚**뭍음



이라.

이로 죄상이 다 놀라 공고를 하고 옹고집이 이날부터 개과 천선하여 세상에 전하여 일가친척이며 원근친고 사람에게 인심을 주장하니 옹고집의 인심을 만만세에 전하더라.

장면표기 03

- 작자 미상, 「옹고집전」 -

*선자: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드는 돈.

고전 필수 어휘

- *송사: 백성끼리 분쟁이 있을 때, 관부에 호소하여 판결을 구하던 일.
- *가변: 집안의 재상이나 사교.
- *죽마고우: 대말을 타고 놀던 벗이라는 뜻으로, 어릴 때부터 같이 놀며 자란 벗.
- *노잣돈: 먼 길을 오가는 데 드는 돈.
- *소작: 농토를 갖지 못한 농민이 일정한 소작료를 지급하며 다른 사람의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짓는 일.
- *소견: 어떤 일이나 사물을 살펴보고 가지게 되는 생각이나 의견.
- *내경: 안채에 있는 뜰.
- *노복: 종살이를 하는 남자.
- *주효: 술과 안주를 아울러 이르는 말.
- *배설: 연회나 의식에 쓰는 물건을 차려 놓음.
- *망종: 일의 마지막.
- *죽장망혜: 대지팡이와 짚신이란 뜻으로, 먼 길을 떠날 때의 아주 간편한 차림새를 이르는 말.
- *사환: 관청이나 회사, 가게 따위에서 잔심부름을 시키기 위하여 고용한 사람.
- *기한: 굶주리고 헐벗어 배고프고 추움.
- *중장: 곤장으로 몹시 쳐서 엄중하게 다스리던 형벌.

고전소설 독해의 STEP 2

1. 장면을 적절히 나누었는지, 장면별 내용의 빈칸에 적절한 말을 채웠는지 확인해 보세요.

장면표기 01

참·거짓 옹고집을 가리기 위해 **두 옹고집이 송사하러 가는 길에**, 진짜인 척하는 **짚옹고집**을 보고 참옹고집은 어이가 없어 억울해 함

Tip 참옹고집과 짚옹고집은 누가 진짜 옹고집인지를 가리기 위해 송사하러 떠나. 중략 이후에는 송사가 끝나고 그 결과, 즉 짚옹고집이 승리하여 참옹고집의 집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 따라서 중략 이전에 장면을 끊어야겠지?

장면표기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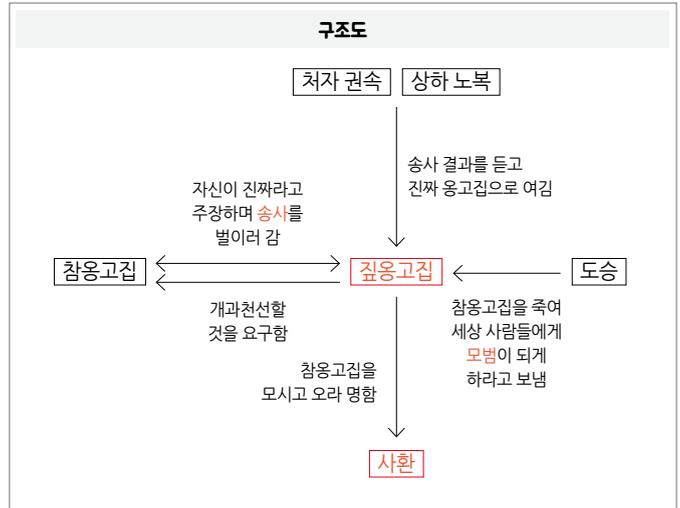
송사에서 이긴 **짚옹고집**은 **집으로 돌아와서** 재물과 곡식을 풀어 주변 사람들을 도움

Tip 짚옹고집이 참옹고집과는 달리 재물과 곡식으로 활인구제하는 장면이 나와. 이후 장면에서는 '하루는'이라고 시작하며 시간이 변화하고 새로운 사건이 시작됨을 알려주니 여기서 장면이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겠어.

장면표기 03

하루는 죽장망혜의 차림으로 다시 집을 찾아온 참옹고집에게 짚옹고집이 개과천선할 것을 명하며 사라지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참옹고집은 개과천선하여 인심을 베풀

2. 구조도의 빈칸에 적절한 말을 채웠는지 확인해 보세요.



3. 1~2번 문제의 정답과 해설을 확인해 보세요.

▶정답률 66%

1. <보기>는 「옹고집전」 이본의 일부이다. [B]와 <보기>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참옹고집 듣기를 다하여 천방지방 도사 앞에 급히 나아가 합장배례하며 공손히 하는 말이, “이놈의 죄를 생각하면 천사(千死)라도 무석(無惜)이요 만사라도 무석이나 명명하신 도덕하에 제발 덕분 살려 주오. 당상의 늙은 모친 규종의 어린 처자 다시 보게 하옵소서. 원건지 하은 후 지하에 돌아가도 여한이 없을까 하나이다. 제발 덕분 살려 주옵소서.”

만단으로 애걸하니 도사 하는 말이, “천지간에 몹쓸 놈아. 인제도 팔십 당년 늙은 모친 냉돌방에 구박할까, 불도를 능멸할까. 너 같은 몹쓸 놈은 응당 죽일 것이로되 정상(情狀)이 불쌍하고 너의 처자 가여운 고로 놓아주니 돌아가 개과천선하라.”

부적을 써 주며 알, “이 부적을 몸에 붙이고 네 집에 들어가면 괴이한 일 있으리라.”

하고 홀연 간데없거늘 참옹고집 즐겨 돌아와서 제 집 문전 다다르니 고루거 각 높은 집에 청풍명월 많은 경은 옛 놀던 풍경이라.



정답풀이

④ '참옹고집'에게 개과천선하라는 요청이 [B]와 <보기> 모두 인물의 발화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B]와 <보기>에서 모두 인물의 발화는 '참옹고집'이 용서를 구하기 시작하는 계기에 해당하는군.

송사 이후 진짜 옹고집 행세를 해오던 '참옹고집'은 [B]에서 '참옹고집'에게 '첫째로는 부모 박대하니~이후는 아무쪼록 개과하라.'라고 말한 뒤 '허수아비 찰벼 짚뭉음'이 되어 사라진다. 이후 옹고집이 개과천선하여 그것이 세상에 전해졌다고 하였으나, [B]에서 '참옹고집'이 '참옹고집'의 발화를 들은 뒤 용서를 구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보기>에서 '도사'는 '참옹고집'에게 '천지간에 뭍살 놓아~돌아가 개과천선하라.'라고 말하는 데, 이는 '참옹고집'이 먼저 '도사'에게 '이놈의 죄를 생각하면~제발 덕분 살려 주옵소서.'라고 간청한 뒤에 이루어진 발화이다. 따라서 [B]와 <보기>에서 모두 인물의 발화가 '참옹고집'이 용서를 구하기 시작하는 계기에 해당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참옹고집'을 살려 두는 이유로 [B]는 '나의 어진 용심'을, <보기>는 '정상이 불쌍'함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 [B]에서는 용서하는 이의 마음을 고려했고, <보기>에서는 용서받는 이의 처지까지도 고려하였군.

[B]에서 '참옹고집'은 '참옹고집'에게 본래 '너의 죄목을 잡아 아주 죽여 세상에 영영 자취 없게 하여 세상 사람에게 모범이 되게 하'려고 했음을 밝힌다. 하지만 마음을 바꾸어 '너를 다시 세상에 내어 보내기'로 한 것은 '나의 어진 용심' 때문이라고 하였으므로, 이는 용서하는 이인 '참옹고집'의 마음을 고려한 서술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보기>에서 '도사'는 '너 같은 뭍살 놓은 응당 죽일 것이로되 정상이 불쌍하고 너의 처자 가여운 고로' '참옹고집'을 살려 둔다고 하였다. 이는 용서받는 이인 '참옹고집'의 처지를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참옹고집'을 살려 두는 이유로 [B]는 '이만해도 후생에게' '징계한 사례'가 됨을, <보기>는 '너의 처자 가여움'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 [B]에서는 징계의 사회적 효용이, <보기>에서는 징계로 인한 가족의 피해가 고려되었군.

[B]에서 '참옹고집'은 '참옹고집'을 살려 두는 이유로 '나의 어진 용심' 외에 '이만해도 후생에게 너 같은 행실을 징계한 사례가 될 듯싶'음을 들고 있다. 이는 '참옹고집'을 살려 두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징계의 사회적 효용을 고려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보기>에서 '도사'는 '참옹고집'에게 '너의 처자 가여운 고로 놓아주'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 이는 '참옹고집'을 징계할 때 그의 가족들이 받게 될 피해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합정 피하기

징계의 사회적 효용이나 징계로 인한 가족의 피해 등의 진술은 낯설긴 하지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B]에서 도승이 참옹고집을 죽여 세상에 영영 자취가 없도록 하라 일렀으나, 참옹고집이 참옹고집을 살려 두는 이유는 '이만해도 후생에게' 이러한 악행을 '징계한 사례'가 됨, 즉 참옹고집에 대한 징계가 사회적으로 효용(보람 있게 쓰거나 쓰임)이 있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보기>에서 도사가 참옹고집을 응당 죽일 것이로되 살려 두는 이유로 '너의 처자 가여움'을 제시한 것은 참옹고집의 징계로 인한 가족(처자)의 피해를 고려한 것이다.

③ '참옹고집'의 악행으로 [B]는 '부모 박대'를, <보기>는 '모친' '구박'을 거론하는 것으로 보아, [B]와 <보기>에서 모두 '참옹고집'의 비인륜적 행위가 징계의 사유에 포함되었군.

[B]에서 '참옹고집'은 '부모 박대하니 세상에 용납지 못할 놈'이라며 '참옹고집'을 비난하고 있다. 또한 <보기>에서 '도사'는 '인제도 팔십 당년 늙은 모친 냉돌방에 구박할까,'라며 '참옹고집'을 꾸짖고 있다. 이를 통해 [B]와 <보기>에서는 모두 '참옹고집'의 징계 사유에 비인륜적 행위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참옹고집'을 훈계하던 존재가 [B]에서는 '허수아비'로 변하고, <보기>에서는 '홀연' 사라지는 것으로 보아, [B]와 <보기>에서 모두 신이한 사건이 벌어지는군.

[B]에서 '참옹고집'을 훈계하던 '참옹고집'은 '이후는 아무쪼록 개과하라.'라는 말을 남긴 뒤 '허수아비 찰벼 짚뭉음'이 되어 사라진다. 또한 <보기>에서 '도사' 역시 '참옹고집'에게 '돌아가 개과천선하라.'라고 말하며 부적을 써준 뒤 '홀연 간데없'이 사라진다. 이를 통해 [B]와 <보기>에서 모두 신이한 사건이 벌어졌다고 할 수 있다.

2. 문학 개념어 OX 확인 문제

① O

근거 [A]에서 참옹고집은 참옹고집과 함께 송사 가는 길에 '음의 촌가인'들에게 먼저 다가가 아는 체를 하거나,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가짜가 나타나서 송사를 가게 되었다고 말하는데, 이를 본 참옹고집의 답답한 심정을 서술자는 '참옹고집이 뒤에 오면서 기가 막히고 얼척도 없어 말도 못하고 울음'을 운다며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② X

모사: 어떤 대상이나 인물의 외양, 행동, 내면 등을 그림을 보여 주듯 표현하는 것.

근거 [A]에서 참옹고집과 참옹고집이 송사를 가는 길에 '음의 촌가인'들이나 행인들이 새롭게 등장하지만, 이들에 대한 외양 묘사는 나타나지 않음.